

비서학과 대학생의 전공만족이 진로역량에 미치는 영향: 진로포부의 매개효과 및 진로취업지원 서비스 경험의 조절효과

황정희 (백석예술대학교)*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비서학과 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진로포부, 진로역량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전공만족도와 진로역량의 관계에 있어서 진로포부의 매개효과와 진로포부와 진로역량의 관계에서 대학 내 진로취업지원 서비스 경험의 조절효과를 고찰하는데 있다. 이와 같은 연구를 위해 비서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4년제 대학교 2곳과 2년제 대학 6곳에 재학중인 비서학과 대학생 38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서학과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 진로포부, 성찰역량, 관계역량, 행동역량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공만족도와 진로역량, 전공만족도와 진로포부, 진로포부와 진로역량의 관계 모두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진로취업교과목 수강과 진로취업상담, 진로취업 프로그램 참여는 성찰역량, 관계역량, 행동역량과, 직무 관련 경험은 관계역량과 행동역량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셋째, 전공만족도와 진로포부는 성찰역량, 관계역량, 행동역량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들은 행동역량, 성찰역량, 관계역량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전공만족도는 진로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넷째, 전공만족도와 진로역량 하위요인과의 관계에서 모두 진로포부가 부분매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진로포부와 진로역량과의 관계가 진로취업지원 서비스 경험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검증한 결과, 진로포부와 진로역량의 관계에서 진로취업교과목 수강, 진로취업상담, 그리고 진로취업프로그램 참여의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없었다. 직무관련 경험은 진로포부와 관계역량, 행동역량과의 관계에서는 조절효과가 없었던 반면, 진로포부와 성찰역량의 관계에서는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비서학과 대학생들의 전 생애 관점에서의 진로발달을 위한 전공교육의 방향과 전공 및 진로취업 지도에 가이드 라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비서학과 대학생, 전공만족도, 진로포부, 진로역량.

* 제1저자, 백석예술대학교 경영행정학부 교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9길 23 백석예술대학교; E-mail: dearhwang@bau.ac.kr; Tel: 02-520-0660; Fax: 02-520-6205.

1. 서론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과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고용 한파는 대학생들의 적절한 시기의 노동시장 진입 실패와 그로 인한 좌절과 무기력감으로 미래에 대한 꿈과 도전정신을 잃는 등 개인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직업세계 변화와 사회의 요구가 다양해질 것이므로 대학생들의 순조로운 노동시장 이행과 직업세계에의 대응을 위한 대학생 스스로의 개인적 역량과 대학의 역할이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다.

급변하는 직업세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개인적 역량과 관련하여 전 생애 관점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를 설계, 탐색,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역량이라는 개념이 있다. 진로역량은 진로선택과 실현을 위한 삶의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과 태도, 가치로 진로목표를 지향할 수 있는 통합적 능력(정은이, 2015)으로 성공적인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및 개인의 진로성공을 예측하는 핵심 변인이다(정지은, 2017; Akkermans et al., 2013; DeFillipi & Arthur, 1994). 대학생에게 있어 진로역량 개발은 노동시장 이행이라는 단기적 진로성공뿐 아니라 평생 장기적으로 의미있는 진로성공을 이룰 수 있는 자원을 축적하고(정지은, 2017), 대학생 시기에 집중적인 진로개발이 이루어진다는 점(최동선, 윤희환, 2007)에서 대학생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

그동안 비서학과는 대학교 내에서 높은 취업률과 취업의 질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비서학과 학생들 역시 대중매체를 통해 취업난을 접하고 취업준비과정에서 진로를 변경할 때 취업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미영, 2015). 특히 사회 요구에 맞추어 대학의 진로교육은 취업 준비 이전의 진로 탐색 및 진로준비와 취업 이후의 재취업, 이직, 창업 등 직업생활과 관련된 삶 속에서 자신의 진로를 개발하고 개척할 수 있는 진로역량을 기르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이민욱 등, 2020). 이에 비서학 분야에서도 졸업 이후의 취업과 같은 단기적인 성과를 위한 진로취업 지도가 아닌 전 생애적인 관점에서 학생들의 진로 발달을 돕는 진로취업 지도가 비서학과에서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지 고민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진로역량은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교육환경에 영향을 받으며(Kuijpers et al., 2011), 대학에서의 진로개발 지원은 대학뿐 아니라 대학 내 학과별로도 상이하게 나타난다(정지은, 2017)는 점에서 대학과 전공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학생의 진로성공에 있어 대학이라는 환경 특성을 고려하여 대학 및 전공의 역할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전공만족과 대학과 전공에서 제공되는 진로 및 취업 지원 서비스에 주목하였다.

전공만족은 진로태도 및 진로의식, 진로준비행동, 진로탐색행동,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포기 전공만족은 진로태도 및 진로의식, 진로준비행동, 진로탐색행동,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포기 등의 진로관련 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강승희, 2010; 강영숙·이은정, 2006; 문인오·이경완, 2010; 소영호·하상원, 2014; 송윤정·조규관, 2015). 이를 통해 전공만족은 대학생들의 향후 진로발달, 전공 관련 직업 인식 및 태도, 전공 관련 직업에 대한 관심 및 적극적 진로준비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진로역량과의 관계를 고려할 볼

수 있다. 특히 비서학과의 경우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전공 특성에 관심을 갖고 입학하는 경우가 많아 타전공에 비해 진로의 방향성을 비교적 명확히 가지고 있어 비서학과 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만족은 그들의 진로역량에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정부의 고학력 청년실업을 줄이기 위한 많은 정책의 일환으로 대학은 다양한 진로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은 대학생들의 미래 불안을 감소시키고 직업 선택과 미래에 대한 적절한 준비와 성공적인 미래 성취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이동혁, 2010), 대학의 진로취업 서비스는 대학생의 진로역량의 의미있는 영향요인으로 밝혀졌다(이민욱 등, 2020). 그러나 그동안 비서학 분야에서 대학 내 진로취업 관련 서비스 측면을 다룬 연구가 거의 없다. 또한 대학 진로취업지원 현황조사(이재열 등, 2020)에서 대학 진로교육의 내용과 질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진로역량 수준이 계열별로도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져(강미영, 2020) 비서학과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진로취업지원 서비스에 대한 점검과 급변하는 직업세계에서 생애 전반을 고려한 진로개발이 중요해짐에 따라 비서학과도 가시적인 취업률에 만족하는 진로취업 교육을 재고해 보아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전공만족과 진로역량 간 관계에서 전공만족이 진로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전공만족은 전공에 대한 애착과 몰입을 통해 전공 관련 진출분야에 대한 큰 기대와 비전, 높은 진로목표와 계획을 갖게 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은 더욱 전공 관련 진로와 직업에 대해 고민, 탐색하고 적극적인 준비와 미래 진로설계 등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의 진로발달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변인(박용두·이기학, 2008)으로, 대학생의 성공적인 진로발달을 위해 자신의 진로 목표를 설정하고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진로포부의 형성과 발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박보경, 2021). 진로포부는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서의 성취에 대한 열망으로, 진로포부의 올바른 형성은 개인의 진로발달과 직업성공에 도움이 되며(O'Brien, 1996), 직업 목표의식을 형성시켜 줌으로써 직업성취와 탐색에 대해 강한 영향을 미친다(최예슬·오현석, 2011). 또한 진로포부는 개인적 특성과 학교 등 외부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김국현·나승일, 2017; 박용두·이기학, 2008; 황매향 등, 2006; Gottfredson, 1981; O'Brien, 1996)는 점에서 학생들이 전 생애에 걸쳐 성공적인 진로를 개발해 갈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는 높은 진로포부 수준을 갖는데 있어 전공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전공 관련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되는 전공 학과는 대학생들의 진로성공에 있어 매우 의미있고 교수, 졸업생, 선배들과의 밀접한 인적 환경을 통해 진로포부 형성에 중요한 환경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진로교육 분야에서 진로역량의 선행변인으로 전공만족도와 진로포부의 역할을 규명하거나 전공만족도와 진로포부, 진로역량 간 관계를 함께 고려한 연구는 없었다. 또한 비서학 연구에서 그동안 비서학과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이 주요 관심 분야로써 다루어져 왔지만(문주영, 2021), 학생들의 진로역량과 진로포부를 다룬 연구가 없고 대학 내 진로취업 관련 서비스 측면을 다룬 연구가 매우 부족하여 이들 관련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서학과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 진로포부, 진로역량 간 관계를 파악하고

전공만족도와 진로역량의 관계에서 진로포부의 매개효과와 진로포부와 진로역량의 관계에서 대학내 진로취업지원 서비스 경험의 조절효과를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비서학과 대학생들의 전 생애 관점에서의 진로발달을 위한 전공교육의 방향과 전공 및 진로취업 지도에 가이드 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서학과 학생들의 진로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학생들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진로취업 교육에 대한 고민과 그 효과성을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나아가 대학생들의 진로역량을 높이는데 있어 전공만족도와 진로포부의 역할을 규명해 봄으로써 향후 대학과 전공에서 이루어지는 진로역량 기반의 진로취업 지도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여 계속 변화하고 발전하는 대학과 전공의 교육 방향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의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2.1 전공만족도

전공은 학생들의 장래 진로와 직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윤지영, 2014), 전공만족도는 진로나 직업을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요인이고(문학선 · 김양균, 2020) 대학생들의 학업성취와 성공적인 대학생활에 주요한 영향인자(Plaud et al., 1990)로 알려져 있다. 전공만족도에 대해 남중수(2010)는 자신이 현재 소속된 전공학과와 자신 생애의 이상이나 진로 또는 직업에 대한 기준을 비교하여 현재 자신이 소속한 전공을 평가하는 판단과정의 산물의 수준이라고 하였다. 전공만족도는 전공학습과정 또는 학과에 대하여 개인이 느끼는 감정적, 인지적 측면을 반영하는 개념으로 전공학과에 대하여 가지는 주관적 경험의 정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강명숙, 2015).

일반적으로 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취업 후 직업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정주영, 2013), 진로교육 분야의 많은 연구에서 높은 전공만족도는 진로태도 성숙, 진로의식, 취업준비행동, 진로탐색행동,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탐색자기효능감, 진로포부 등의 진로관련 변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진로의식과 진로관심 수준이 향상되는 것으로 밝혀졌다(강승희, 2010; 강영숙 · 이은정, 2006; 문인오 · 이경완, 2010; 소영호 · 하상원, 2014; 송윤정 · 조규판, 2015; 이종훈 · 김성환, 2018). 비서학 분야에서도 대학생들의 전공만족이 진로준비행동, 진로태도 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보고되고 있다(서보람 · 이기성, 2018; 유승혜 등, 2010).

2.2 진로포부

진로포부는 개인의 진로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인이다(박용두 · 이기학, 2008).

Gottfredson(1981)이 포부를 진로이론에 적용하여 시작된 진로포부는 직업포부로 인식되어 특정 직업의 선택을 희망하는 개인의 열망으로 정의되었다(박보경, 2021). 이후 Farmer(1985)는 직업 포부에 그 직업을 성취하기 위한 교육적 준비와 관련된 교육포부를 추가하였다(정지은, 2017). 1990년대 초반에 이르러서 진로포부가 직업포부를 포함하는 관점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김국현 · 나승일, 2017; 정지은, 2017) O'Brien(1996)은 진로포부를 자신의 진로영역 안에서 성공을 위해 중요한 직위 혹은 최고 권위자에 오르기를 희망하거나 계속해서 교육을 받고자 희망하는 정도로 정의하고 진로포부에 성취 포부와 리더 포부, 교육 포부가 포함된다고 하였다. 즉 진로포부는 자신이 선택한 진로영역에서의 진로성취에 대한 열망, 리더가 되고자 하는 열망, 계속해서 교육을 통해 자신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열망으로 정의할 수 있다(Gray, 2001; O'Brien, 1996). 이에 김국현과 나승일(2017)은 진로포부에 대해 개인이 자신의 삶을 영위하면서 보다 나은 미래를 추구하기 위해 향후 희망하는 진로 영역에서 되고자 희망하는 목표 혹은 성취수준 이라고 하였다.

개인의 진로포부는 개인적 특성과 학교 등 외부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황매향 등, 2006; Gottfredson, 1981; O'Brien, 1996). 개인적 요인으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부모 지지, 사회적 지지, 성취동기, 성취목표지향성,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등이 진로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미나 · 박재황, 2012; 김국현 · 나승일, 2017; 김경주 · 송병국, 2011; 김명희 · 최응용, 2014; 박보경, 2021; 이정애 · 황재규, 2012; 최수미, 2013). 최근에는 학교 만족도, 학교의 지원행위 등의 대학 차원의 요인이 전문대 학생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이 부각되고 있다(김국현 · 나승일, 2017; 황매향 등, 2006). 대학 차원의 요인으로는 전공(학과)만족도, 교수 지지, 대학의 진로지원, 학과 계열, 교수-학생 관계의 질(권연정, 2019; 김국현 · 나승일, 2017; 박보경, 2021; 이환희 · 차재빈, 2020) 등이 대학생의 진로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2.3 진로역량

조직에서 널리 사용되는 역량(competency)이 진로개발 분야에 적용되어 진로역량과 진로개발 역량으로 개념화되었다(박가열, 2009).

진로교육법 제 4조 1항에서는 진로개발역량에 대해 변화하는 직업세계와 평생학습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진로를 개척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역량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대학생의 진로개발역량에 대해 임언(2008)은 개인이 진로개발을 하는데 필요한 역량으로서 삶의 지향점을 설정하고, 진로를 선택하고, 그러한 선택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스킬, 태도, 가치와 성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정지은(2017)은 진로의 계속성을 강조하는 전 생애 통합적 관점에서 개인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역량과 성공적인 진로에 필요한 역량 함양을 고려하여 대학생의 진로역량에 대해 개인의 일(work)을 중심으로 한 경험의 계속된 과정에서 개인에게 의미있는 진로성공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핵심적인 지식, 기술, 태도로 구성된 총체적 능력

으로 정의하였다. 장현진(2018) 역시 평생 진로개발 측면을 강조하면서 개인이 일생동안 수행하는 다양한 역할과 경험을 자기 주도적이며 합리적으로 선택, 준비, 비교 및 평가하며 관리할 수 있는 지식, 기술, 태도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진로역량은 진로성공을 위한 핵심역량으로 인정받고 있다(정은이, 2015; 정지은, 2017; DeFillipi & Arthur, 1994; Kuijpers et al., 2006).

교육부(2015)는 학교 진로교육의 목표를 학생의 창의적인 진로개발역량을 증진시키는데 두고 초, 중등학교의 진로교육 영역을 자아이해와 사회적 역량 개발, 일과 직업세계 이해, 진로 탐색, 진로디자인과 준비로 제시하고 있다. 교육부의 진로교육 목표를 토대로 대학생이 갖추어야 할 진로역량의 구성요소에 대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최동선과 윤형한(2007)은 자신의 이해, 교육 및 직업세계의 이해와 탐색, 진로계획 및 진로관리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체계화하였다. 김경화(2012)는 평생 진로발달 관점에서 일생에 걸친 자기능력개발 과정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대학생의 진로역량의 하위요소를 자기관리 및 직업탐색과 진로계획 및 관리 영역으로 범주화하였다. 정지은(2017)은 진로개발이 계속성있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진다는 점에서 Akkerman et al.(2013)이 도출한 성찰역량, 커뮤니케이션역량, 행동역량의 3가지 영역과 6가지 하위요인을 토대로 대학생의 진로역량 척도를 개발하였다. 성찰역량은 자신의 진로 방향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특성과 진로 방향성을 연계해 나가기 위한 성찰적 역량으로 진로성찰과 자기성찰로 구성된다. 커뮤니케이션역량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타인과 소통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관계적 역량으로 자기표현과 네트워크로 구성된다. 행동역량은 주도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개발해나가는 실천적 역량으로 진로탐색과 진로관리로 구성된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2017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대학 진로취업지원 현황조사’에서 이재열 등(2020)은 정지은(2017) 연구를 토대로 진로역량의 영역을 하위 지표없이 성찰역량, 관계역량, 행동역량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2.4 대학 내 진로취업지원 서비스

대학은 대학생들의 진로취업지원을 위한 교육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대학의 진로지도와 진로교육은 대학생들의 미래 불안을 감소시키고 직업 선택과 미래 준비, 성공적인 미래 성취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동혁, 2010).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제공하고 있는 진로취업 서비스로는 진로취업 교과목, 상담, 온라인상 정보 제공, 심리검사, 멘토링, 취업준비 프로그램(입사서류 및 면접 클리닉), 특강 및 캠프, 현장실습 및 인턴십, 설명회 및 박람회, 동아리 등이다(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20; 진미석 등, 2010).

진로교과목은 다른 진로 프로그램에 비해 학생들이 장시간에 걸쳐 자신의 진로를 생각해 보게 하고 체계적인 준비로 졸업 이후의 진로를 효과적으로 준비하게 하고 대학생들의 성공적인 진로발달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이동혁, 2010; 임언 등, 2006). 대학 진로취업지원 현황조사(2020)의 의하면 4년제와 2년제 대학생들이 진로 및 취창업지원 서비스 중에 가장 많이 경험한 항목이 학과 교수와의 진로 취업 상담이 각각 70.9%, 75.3%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대학에서 교과과정 외 주로 이루어지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에는 특강, 진로탐색 및 취업준비 프로그램, 취업캠프, 클리닉(입사서류, 면접), 취업박람회 등 행사 등이 있다.

한편 요즘 직무·역량 중심 채용 트렌드에 따라 재학 중 관련 일 경험은 성공적인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에 필수조건이 되고 있다. 일 경험은 직업의식을 형성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기회가 되고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돕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정지은, 2017), 대학생의 일 경험은 인턴십, 현장실습, 아르바이트로 구분된다(장원섭, 2004). 대학생들이 진로 및 취창업 준비를 위해 필요로 하는 대학의 지원에 대해 4년제 대학생과 전문대학 학생들 모두 현장실습 및 인턴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진로 및 취창업 준비과정에서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4년제와 전문대학 학생들 모두 관련 업무·인턴 경험과 관련 자격증 취득을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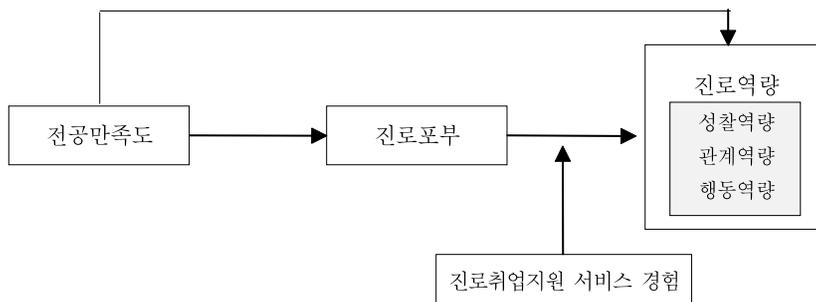
비서학 연구에서 대학의 진로취업 프로그램을 다룬 연구는 4년제 대학에서 비서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가 진로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취업특강, 취업캠프, 진로상담이 진로준비와 유의한 관계를 보인 연구(김미영, 2014)가 유일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 진로취업지원 서비스로 진로취업교과목, 진로취업상담, 진로취업프로그램, 직무 관련 경험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III.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는 비서학과 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진로포부, 진로역량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전공만족도와 진로역량의 관계에 있어서 진로포부의 매개효과와 진로포부와 진로역량의 관계에서 대학 내 진로취업지원 서비스 경험의 조절효과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3.1.1 전공만족도, 진로포부, 진로역량 간 관계

대학생들의 전공만족은 진로결정과 직업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권연정, 2019), 전공만족이 높은 학생은 학과에 대한 애착으로 진로에 대해 명확한 계획과 목표를 설정하고 적극적인 노력과 진취적인 태도를 보인다(남순현, 2005).

학과(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진로개발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이민욱 등, 2020) 여러 연구에서 전공학과 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 진로태도성숙도,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진로탐색행동, 전공 관련 직업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강영숙·이은정, 2006; 문인오·이경완, 2010; 송윤정·조규관, 2015; 임은미 등, 2009; 장선철, 2003). 유승혜 등(2010) 연구에서는 전문대학 비서학 전공 학생들의 학과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태도 성숙도가 높고 진로태도 성숙도가 높을수록 취업역량 준비도가 높음을 규명하였다. 전공만족도가 높으면 전공학습에 전념, 전공 영역의 학업성취도 향상, 전공 관련 직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갖게 하여 재학 중 진로목표를 쉽게 정하고 희망 직업에 대한 준비 행동을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능동적으로 결정하고 진로에 적합한 준비를 한다(권연정, 2019)는 맥락에서 비서학과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가 진로역량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유아교육전공 대학생과 골프전공 대학생, 일반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와 진로포부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권연정, 2019; 김국현·나승일, 2017; 소영호·하상민, 2014)에서 전공만족도는 진로포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비서학과 대학생들의 전공만족은 자신이 원하는 진로영역에서 발전하고자 하는 기대 수준과 자신이 정한 직업 및 진로영역에서 설정하는 목표 수준을 의미하는 진로포부의 의미있는 변인으로 고려할 수 있다.

진로포부는 개인의 진로발달과 직업성공에 도움이 되며(O'Brien, 1996), 직업에 대한 목표의식을 형성시켜 줌으로써 직업성취와 탐색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최예슬·오현석, 2011). 또한 진로포부 수준이 높은 대학생은 보다 적극적으로 진로 관련 준비를 하고(정은이, 2010) 진로목표 추구활동 등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아지는(김명희·최용용, 2014) 것으로 밝혀졌다. 진로발달에 있어 진로포부가 높은 사람들은 도전적이어서 실패보다는 성공에 초점을 맞추고 목표달성에 대한 가능성을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정지은, 2017). 이를 통해 진로포부가 높은 비서학과 대학생들은 자신의 진로를 주도적이고 목표 지향적으로 개발하려는 태도와 행동을 보여 진로역량이 높게 나타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이에 전공만족도, 진로포부, 진로역량 간의 관련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비서학과 학생들의 전공만족도, 진로포부, 진로역량(성찰역량, 관계역량, 행동역량)간에 정(+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 가설 1-1. 학생들의 전공만족도는 진로역량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1-2. 학생들의 전공만족도는 진로포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1-3. 학생들의 진로포부는 진로역량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2 전공만족도와 진로역량의 관계에서 진로포부의 매개효과

대학생들의 전공만족이 진로포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권연정, 2019), 진로포부는 진로발달과 직업성공에 도움이 되고(O'Brien, 1996) 직업탐색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최예슬·오현석, 2011) 적극적인 진로 관련 준비행동 수준을 높이는(정은이, 2010; 김명희·최용용, 2014) 것으로 밝혀져 전공만족과 진로역량의 관계에서 진로포부가 매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전공만족은 전공에 대한 애착과 몰입을 통해 전공 관련 진출분야에 대한 큰 기대와 비전, 높은 진로목표와 계획을 갖게 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은 더욱 전공 관련 진로와 직업에 대해 고민, 탐색하고 적극적인 준비와 미래 진로설계 등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진로역량에 대한 중요변인으로써 전공만족도를 고려하는 동시에 전공만족도가 진로포부를 통해 진로역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비서학과 학생들의 전공만족도와 진로역량(성찰역량, 관계역량, 행동역량)의 관계에서 진로포부는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 가설 2-1. 학생들의 전공만족도와 성찰역량의 관계에서 진로포부는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 가설 2-2. 학생들의 전공만족도와 관계역량의 관계에서 진로포부는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 가설 2-3. 학생들의 전공만족도와 행동역량의 관계에서 진로포부는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3.1.3 진로포부와 진로역량의 관계에서 진로취업지원 서비스 경험의 조절효과

선행연구에서 대학에서 제공되는 진로취업 관련 프로그램이 진로역량과 유사한 개념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수준, 진로성숙도, 진로탐색행동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이민옥 등, 2020). 이동혁(2010)은 대학 진로교과목의 효과성을 검증한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진로교과목의 효과성이 모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연구에서 진로교과목이 학생들의 진로발달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미석 등(2017) 연구에서도 대학생의 진로교육경험과 자기이해, 관계활용효능감, 진로개발준비도 등 진로개발역량과의 긍정적인 관계가 밝혀졌다. 이민옥(2020)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취업 관련 교과목 및 서비스 경험이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 결과 진로취업 교과목은 진로개발역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지만, 교과목의 목적이나 특성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하위 역량이 다르게 나타났다. 반면 진로취업상담, 진로취업준비 프로그램, 현장실습 및 인턴 등의 참여는 진로개발역량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비서학 연구에서 김미영(2014)가 4년제 대학에서 비서학 전공 학생들의 대학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가 진로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대학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구 대상 대학에서 모두 지원하고 있는 진로 관련 교과목, 취업특강, 취업캠프, 취업동아리, 진로상담을 선정 하였으나, 취업특강, 취업캠프, 진로상담이 진로준비와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취업특강과 진로상담이 전공 및 직업지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영향력이 매우 낮았다. 취업캠프 참여와 진로상담은 구직기술 준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진로취업지원 서비스의 효과가 일관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진로포부와 진로역량의 관계에서 재학 중 진로취업지원 서비스 경험이 유의미한 역할을 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진로포부와 진로역량의 관계에서 진로취업지원 서비스 경험을 할수록 진로역량 수준은 더 높아질 수 있음을 가정하였다.

가설 3. 비서학과 대학생들의 진로포부와 진로역량(성찰역량, 관계역량, 행동역량)의 관계에서 진로취업지원 서비스 경험은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가설 3-1. 학생들의 진로포부와 진로역량의 관계에서 진로취업 교과목 수강 여부는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가설 3-2. 학생들의 진로포부와 진로역량의 관계에서 진로취업 상담 여부는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가설 3-3. 학생들의 진로포부와 진로역량의 관계에서 진로취업 프로그램 수강 여부는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가설 3-4. 학생들의 진로포부와 진로역량의 관계에서 직무 관련 경험 여부는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3.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모집단은 대학교에서 비서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다. 연구대상의 표집은 편의표집(convenience sampling) 방법을 활용하였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비서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4년제 대학교 2곳과 2·3년제 대학 6곳을 표본으로 하여 각 대학의 전공교수 1인을 통해 온라인 설문을 배포하였다. 전공교수에게는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성별, 학년별로 골고루 설문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였다. 설문은 구글 설문지를 활용한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PC 또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설문 웹 페이지에 접속하여 설문 응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조사는 2021년 9월 중에 이루어졌으며, Covid-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연구대상의 설문응답에 대한 통제의 한계로 응답은 자발적으로 참여한 학생들에 제한되었고 최종적으로 설문에 응답한 학생들은 388명이었다. 이상치 응답이나 불성실한 응답이 없어 전체 응답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전체 응답자 388명 중 비서학과 특성상 여학생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남학생이 25명

(6.4%), 여학생이 363명(93.6%)으로 여학생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비서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학교의 대다수가 2년제 대학이기 때문에 학교급의 경우 4년제 대학 125명(32.2%), 2년제 대학 263명(67.8%), 학년은 1학년 120명(30.9%), 2학년 197명(50.8%), 3학년 43명(11.1%), 4학년 28명(7.2%)으로 나타났다. 진로취업지원 서비스 경험과 관련하여 진로취업교과목 수강 경험이 있는 학생은 219명(56.4%), 없는 학생이 169명(43.6%), 진로취업 관련 상담 경험이 있는 학생은 226명(58.2%), 없는 학생이 162명(41.8%), 진로취업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있는 학생은 152명(39.2%), 없는 학생은 236명(60.3%), 인턴십과 현장실습, 아르바이트 등 직무 관련 경험이 있는 학생은 190명(49.0%), 없는 학생은 198명(51.0%)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분석

	구분	인원(명)	비율(%)	구분	인원(명)	비율(%)	
성별	남학생	25	6.4	진로취업 교과목 수강경험	있다	219	56.4
	여학생	363	93.6		없다	169	43.6
학교급	4년제	125	32.2	진로취업상담 경험	있다	226	58.2
	2·3년제	263	67.8		없다	162	41.8
학년	1학년	120	30.9	진로취업 프로그램경험	있다	152	39.2
	2학년	197	50.8		없다	236	60.3
	3학년	43	11.1	직무관련경험	있다	190	49.0
	4학년	28	7.2		없다	198	51.0
전체					388	100%	

3.3 측정도구

3.3.1 진로역량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역량에 대해 전 생애에 걸쳐 자신의 진로를 자기 주도적이고 계속적으로 설계, 탐색, 준비하여 다양한 직업세계와 진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속적인 진로성공을 달성할 수 있는 총체적인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비서학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정지은(2017)이 개발한 대학생의 진로역량 측정 도구를 토대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대학 진로취업지원 현황조사’에서 이재열 등(2020)이 사용한 성찰역량, 관계역량, 행동역량의 12개 문항을 활용하였다.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문항의 사소한 표기 차이로 응답하는데 있어 애매모호함과 문항 의도에 대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일부 항목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고 정지은(2017) 연구를 참고하여 문항을 추가하였다. 문항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진로취업 교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 2인의 검토와 피드백을 통해 수정 보완하여 활용하였다. 예를 들어 ‘나의 진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께 연락하여 조언을 구한다.’ 대신 ‘나의 진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

람들에게 조언을 구한다.’, ‘관심있는 직업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노력한다.’ 대신 ‘관심있는 직업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노력한다.’로 수정 보완하였다. 이를 통해 성찰역량 4개 문항, 관계역량 4개 문항, 행동역량 5개, 총 13개 문항을 사용하여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3.3.2 전공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전공만족도에 대해 전공에 대해 느끼는 감정적, 인지적 태도 수준으로 정의하였다. 손종익(2016)이 호텔관광경영학과 학생들의 전공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문항 중 교과과정 만족요인을 제외한 전공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만족요인과 관련된 6개 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교과과정 만족 문항은 ‘내 전공은 실기시간과 이론 시간이 적절하게 배분되어 있다.’, ‘내 전공은 학생 능력 차이에 따라 학습할 수 있다.’ 등으로 전공에 대해 느끼는 일반적인 태도와는 관련이 없어 제외하였다.

3.3.3 진로포부

본 연구에서 진로포부에 대해 개인의 진로 관련 목표와 실현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열망으로 정의하였다. Rothwell et al.(2008)이 개발한 대학생 진로포부 측정도구를 정지은(2017)이 번안하여 사용한 6개 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3.3.4 진로취업지원 서비스 경험 여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진로취업지원 서비스 경험 여부는 대학 또는 전공에서 제공되는 진로 취업 지원 서비스의 참여 여부를 의미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 문항을 바탕으로 진로취업지원 서비스 경험을 진로취업 정규 교과목 수강, 진로취업상담, 진로취업프로그램 참여 여부로 구성하였다. 진로취업 교과목 수강 여부는 대학에서 정규 교육과정으로 진로 및 취업 관련 교과목을 수강한 적이 있는지를, 진로취업상담 여부는 대학에서 교수, 상담가 등에게 진로 및 취업과 관련된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진로취업 관련 프로그램 참여는 대학에서 진로 및 취업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 여부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추가로 직무 관련 경험 여부에 대해서는 현장실습, 인턴십, 또는 아르바이트 경험을 물었다. 비서직의 경우 직무 특성상 직업 현장에서 실습을 하거나 인턴십 경험을 갖는 것이 어려워 그 대안으로 학생들에게 직무 관련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도록 지도하고 있어 개인적으로 하는 직무 관련 아르바이트 경험도 포함하였다. 이러한 진로취업지원 서비스 경험 여부는 ‘있다’와 ‘없다’로 문항을 구성하고 각각 1과 0으로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3.4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성분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요인을 추출하고 요인적재치의 단순화를 위해 직각회전방식(varimax)을 이용하였다. 고유값(eigen value)가 1.0 이상이고 요인 적재치가 0.40 이상인 측정항목만을 대상으로 요인을 추출한 결과 전공만족도, 진로포부, 성찰역량, 관계역량, 행동역량의 5개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전체 요인을 설명하는 총 분산 설명력은 62.75%로 나타났다. 해당 요인이 아닌 다른 요인으로 묶인 성찰역량 1개 문항은 제거하고 추후 분석에 사용하였다. KMO 값은 .928, Bartlett 구형성 검정의 $\chi^2 = 5120.066$ 로 유의하게 나타나 모형은 적정하게 수렴되었다. 타당성이 확인된 성분의 신뢰도를 구한 결과 Cronbach's α 가 모두 0.6 이상이어서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도와 타당성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변수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변수명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전공 만족도	전공과 교과내용에 흥미를 느낌	.843	.153	.188	.124	.134	
	전공에서 배우는 교과목이 잘 맞음	.801	.146	.110	.135	.189	
	전공에 대해 만족함	.880	.103	.090	.059	.184	
	전공에서 무언가 가치있는 것을 배우고 있다고 느낌	.823	.155	.168	.053	.080	
	전공을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함	.819	.118	.116	.090	.037	
진로 포부	해볼만한 전공이라 생각함	.763	.106	.205	.143	.108	
	내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 중 한 사람이 되고 싶음	-.022	.221	.710	.130	.028	
	내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교육/학위를 이수할 계획이 있음	.246	.403	.487	.153	-.221	
	향후 직장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는 건 나에게 매우 중요한 일임	.191	-.055	.737	.125	.241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이루어 내는 과정이 즐거움	.235	.224	.616	.197	.203	
	인생에서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음	.175	.350	.468	.026	.370	
진로 역량	내 분야의 전문성을 갖기 위해 추가적인 교육훈련을 계속할 것임	.259	.253	.624	.053	.209	
	성찰역량	내 삶에 있어 진로와 직업이 갖는 의미를 생각해 봄	.193	.292	.482	.101	.244
		내 삶에 있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있음	.244	.182	.190	.074	.645
		희망하는 진로에서 나의 강점과 약점을 생각해 봄	.083	.191	.155	.187	.712
	관계역량	희망하는 진로에서의 내 능력을 예측해 봄	.156	.235	.188	.111	.639
		나의 관심사를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함	.178	-.018	.080	.587	.358
		나보다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친분을 쌓음	.078	.210	.163	.760	.082
		진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함	.139	.240	.103	.791	-.012
	행동역량	관심있는 직업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노력함	.111	.384	.231	.561	.186
		관심있는 직업분야에 대한 정보를 계속 수집함	.084	.753	.145	.295	.093
관심있는 직업분야에서 전문성을 쌓기 위한 방법을 찾아봄		.175	.640	.257	.248	.291	
	희망하는 진로에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세움	.173	.741	.247	.083	.239	

	희망하는 진로를 위한 실천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움	.198	.752	.180	.144	.217
	관심있는 직업분야에서 필요한 것을 학습 또는 경험하며 준비함	.247	.438	.371	.208	.245
	아이겐값	4.671	3.297	3.154	2.312	2.253
	설명비율(%)	18.684	13.186	12.618	9.249	9.012
	누적설명비율(%)	18.684	31.870	44.487	53.736	62.749
	Cronbach's α	.930	.795	.682	.746	.857
	KMO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KMO=.928, $\chi^2= 5120.066(df=300 p<.000)$				

3.5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의 통계 분석은 SPSS Version 2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자료 분석방법으로는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의 정도는 기술통계(평균, 표준편차) 분석을 하였으며, 둘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제 변수의 정도 차이는 독립표본 t검증, 일원배치 분산분석(one way-ANOVA)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셋째, 전공만족도가 진로역량에, 전공만족도가 진로포부에, 진로포부가 진로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넷째,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3단계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진로취업지원 서비스 경험이 전공만족도와 진로역량의 관계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단계적 조절회귀분석을 하였다.

IV. 연구 결과

4.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제 변수들의 기술통계량과 상관관계는 <표 3>와 같다. 비서학과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M=3.85), 진로포부(M=3.95), 성찰역량(M=4.09), 관계역량(M=3.93), 행동역량(M=3.82) 수준 모두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역량 수준은 성찰역량이 가장 높고 관계역량, 행동역량 순으로 나타났다. 변수들 간에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전공만족도와 진로역량, 전공만족도와 진로포부, 진로포부와 진로역량의 관계 모두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진로취업 교과목 수강과 진로취업 관련 상담, 진로취업 관련 프로그램참여는 성찰역량, 관계역량, 행동역량과, 희망직무 관련 경험은 관계역량과 행동역량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3> 측정 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결과

변수	1)	2)	3)	4)	5)	6)	7)	8)	9)
1) 전공만족도	1								
2) 진로포부	.483**	1							

3) 성찰역량	.417**	.522**	1						
4) 관계역량	.363**	.484**	.441**	1					
5) 행동역량	.449**	.671**	.565**	.585**	1				
6) 진로취업교과목수강	.131**	.093	.151**	.108*	.118*	1			
7) 진로취업관련상담	.224**	.235**	.172**	.213**	.242**	.289**	1		
8) 진로취업관련프로그램참여	.158**	.187**	.130*	.175**	.199**	.258**	.251**	1	
9) 직무관련경험	.091	.119*	.066	.149**	.138**	.081	.150**	.217**	1
평균	3.85	3.95	4.09	3.93	3.82	.56	.58	.39	.49
표준편차	.80	.63	.61	.72	.71	.50	.49	.49	.50

※ **p<.001, *p<.05

4.2 가설 검증

4.2.1 전공만족도, 진로포부, 진로역량 간의 관계(가설 1 검증)

4.2.1.1 전공만족도가 진로역량에 미치는 영향

전공만족도와 진로역량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한 결과, 전공만족도가 성찰역량($\beta=.42, p<.001$), 관계역량($\beta=.36, p<.001$), 행동역량($\beta=.45, p<.001$)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1이 채택되었다. 전공만족도는 행동역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성찰역량, 관계역량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진로역량에 대한 전공만족도의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B	β	t	p	통계량
전공만족	성찰역량	.319	.417	9.015	<.001	F=81.267, p<.001 R ² =.174, 수정된 R ² =.172
	관계역량	.325	.363	7.648	<.001	F=58.497, p<.001 R ² =.132, 수정된 R ² =.129
	행동역량	.401	.449	9.863	<.001	F=97.288, p<.001 R ² =.201, 수정된 R ² =.199

4.2.1.2 전공만족도가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

전공만족도와 진로포부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한 결과, 전공만족은 진로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beta=.48, p<.001$) 가설 1-2가 채택되었다.

<표 5> 진로포부에 대한 전공만족도의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B	β	t	p	통계량
진로포부	(상수)	2.487		18.023	<.001	F=117.254, p<.001
	전공만족도	.380	.483	10.828	<.001	R ² =.483, 수정된 R ² =.231

4.2.1.3 진로포부가 진로역량에 미치는 영향

진로포부와 진로역량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한 결과, 진로포부는 성찰역량($\beta = .52, p < .001$), 관계역량($\beta = .48, p < .001$), 행동역량($\beta = .67, p < .001$)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3이 채택되었다. 진로포부는 행동역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성찰역량, 관계역량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진로역량에 대한 진로포부의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B	β	t	p	통계량
진로포부	성찰역량	.507	.522	12.018	<.001	F=144.438, p<.001 R ² =.272, 수정된 R ² =.270
	관계역량	.552	.484	10.864	<.001	F=118.037, p<.001 R ² =.234, 수정된 R ² =.232
	행동역량	.762	.671	17.765	<.001	F=351.579, p<.001 R ² =.450, 수정된 R ² =.448

4.2.2 전공만족도와 진로역량과의 관계에서 진로포부의 매개효과(가설 2 검증)

4.2.2.1 전공만족도와 성찰역량과의 관계에서 진로포부의 매개효과

전공만족도와 진로역량과의 관계를 진로포부가 매개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절차에 따라 3단계의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독립변인(전공만족도)이 매개변인(진로포부)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한지 검증하였고, 2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진로역량)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한지를 검증하였으며, 3단계에서는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을 회귀식에 함께 투입하였을 때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면서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2단계에 비해 감소하거나(부분매개효과)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더 이상 유의하지 않은지(완전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전공만족도와 성찰역량과의 관계에서 진로포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3단계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매개효과 검증의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전공만족도가 매개변인인 진로포부를 유의하게 예측($\beta = .48, p < .001$)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단계에서도 전공만족도가 종속변인인 성찰역량을 유의하게 예측($\beta = .42, p < .001$)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3단계에서 매개변인인 진로포부를 전공만족도와 함께 투입하였을 때 진로포부는 성찰역량을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beta = .42, p < .001$), 전공만족도는 성찰역량에 여전히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2단계($\beta = .42, p < .001$)에 비해 전공만족도의 표준화된 회귀계수 값이 감소하였다($\beta = .22, p < .001$). 이는 전공만족도가 성찰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진로포부가 부분매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가설 2-1은 채택되었다.

<표 7> 전공만족도와 성찰역량과의 관계에서 진로포부의 매개효과 검증

단계	변수		β	t	p	R ²	F
1단계 (독립→매개)	전공만족도	→ 진로포부	.483	10.828	<.001	.233	117.254**
2단계 (독립→종속)	전공만족도	→ 성찰역량	.417	9.015	<.001	.174	81.267**
3단계 (독립, 매개→종속)	전공만족도	→ 성찰역량	.215	4.448	<.001	.308	85.622**
	진로포부		.418	8.631	<.001		

※ **p<.001

4.2.2.2 전공만족도와 관계역량과의 관계에서 진로포부의 매개효과

전공만족도와 관계역량과의 관계에서 진로포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3단계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매개효과 검증의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전공만족도가 매개변인인 진로포부를 유의하게 예측($\beta=.48, p<.001$)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단계에서도 전공만족도가 종속변인인 관계역량을 유의하게 예측($\beta=.36, p<.001$)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3단계에서 매개변인인 진로포부를 전공만족도와 함께 투입하였을 때 진로포부는 관계역량을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beta=.40, p<.001$), 전공만족도는 관계역량에 여전히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2단계($\beta=.36, p<.001$)에 비해 전공만족도의 표준화된 회귀계수 값이 감소하였다($\beta=.17, p<.001$). 이는 전공만족도가 관계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진로포부가 부분매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가설 2-2가 채택되었다.

<표 8> 전공만족도와 관계역량과의 관계에서 진로포부의 매개효과 검증

단계	변수		β	t	p	R ²	F
1단계 (독립→매개)	전공만족도	→ 진로포부	.483	10.828	<.001	.483	117.254
2단계 (독립→종속)	전공만족도	→ 관계역량	.363	7.648	<.001	.132	58.497**
3단계 (독립, 매개→종속)	전공만족도	→ 관계역량	.168	3.355	<.001	.256	66.216**
	진로포부		.403	8.021	<.001		

※ **p<.001

4.2.2.3 전공만족도와 행동역량과의 관계에서 진로포부의 매개효과

전공만족도와 행동역량과의 관계에서 진로포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3단계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매개효과 검증의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전공만족도가 매개변인인 진로포부를 유의하게 예측($\beta=.48, p<.001$)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단계에서도 전공만족도가 종속변인인 행동역량을 유의하게 예측($\beta=.45, p<.001$)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3단계에서 매개변인인 진로포부를 전공만족도와 함께 투입하였을 때 진로포부는 행동역량을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beta=.60, p<.001$), 전공만족도는 행동역량에 여전히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

나, 2단계($\beta=.45$, $p<.001$)에 비해 전공만족도의 표준화된 회귀계수 값이 감소하였다($\beta=.16$, $p<.001$). 이는 전공만족도가 행동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진로포부가 부분매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가설 2-3은 채택되었다.

<표 9> 전공만족도와 행동역량과의 관계에서 진로포부의 매개효과 검증

단계	변수		β	t	p	R ²	F
1단계 (독립→매개)	전공만족도	→ 진로포부	.483	10.828	<.001	.483	117.254
2단계 (독립→종속)	전공만족도	→ 행동역량	.449	9.863	<.001	.201	97.288**
3단계 (독립, 매개→종속)	전공만족도	→ 행동역량	.163	3.845	<.001	.470	170.820**
	진로포부		.592	13.977	<.001		

* ** $p<.001$

4.2.3 진로포부와 진로역량과의 관계에서 진로취업지원 서비스 경험의 조절효과

4.2.3.1 진로포부와 진로역량과의 관계에서 진로취업 교과목 수강 여부의 조절효과

진로포부와 진로역량과의 관계가 진로취업교과목 수강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단계적 조절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진로포부와 진로취업 교과목 수강여부를 1단계에 투입하고, 2단계에서 진로포부와 진로취업 교과목 수강여부의 상호작용변수를 추가로 투입하였다. 주효과를 통제한 후에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지 검증한 결과, 진로포부와 진로취업교과목 수강여부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포부와 진로역량의 관계에서 진로취업교과목 수강여부의 조절효과가 없음을 의미하므로 가설 3-1이 기각되었다.

<표 10> 진로포부와 진로역량과의 관계에서 진로취업 교과목 수강 여부의 조절효과

변수	성취역량				관계역량				행동역량			
	모형 2		모형 3		모형 2		모형 3		모형 2		모형 3	
	β	t	β	t	β	t	β	t	β	t	β	t
진로포부(X1)	.512**	11.816	.498**	8.809	.478**	10.699	.438**	7.529	.665**	17.577	.673**	13.612
진로취업교과목 수강여부(M1)	-.103	-2.373	-.208	-7.50	-.064	-1.427	-.362	-1.271	-.056	-1.472	-.002	-.007
X1 * M1			.106	.383			.301	1.060			-.054	-.226
ΔR^2	.010		.000		.004		.002		.003		.000	
R ²	.283		.283		.238		.240		.453		.453	
F	75.900**		50.537**		60.195**		40.518**		159.349**		105.988**	

* ** $p<.001$

4.2.3.2 진로포부와 진로역량의 관계에서 진로취업 관련 상담 여부의 조절효과

진로포부와 진로역량과의 관계가 진로취업 관련 상담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단계적 조절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진로포부와 진로취업 관련 상담 여부를 1단계에 투입하고, 2단계에서 진로포부와 진로취업 관련 상담 여부의 상호작용변수를 추가로 투

입하였다. 주효과를 통제한 후에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지 검증한 결과, 진로포부와 진로취업 관련 상담 여부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포부와 진로역량의 관계에서 진로취업 관련 상담 여부의 조절효과가 없음을 의미하므로 가설 3-2가 기각되었다.

<표 11> 진로포부와 진로역량의 관계에서 진로취업 관련 상담 여부의 조절효과

변수	성찰역량				관계역량				행동역량			
	모형 2		모형 3		모형 2		모형 3		모형 2		모형 3	
	β	t	β	t	β	t	β	t	β	t	β	t
진로포부(X1)	.510**	11.411	.437**	7.522	.459**	10.078	.416**	6.991	.650**	16.819	.588**	11.700
진로취업관련 상담여부(M2)	-.052	-1.167	-.590*	-2.106	-.105*	-2.293	-.426	-1.487	-.089*	-2.308	-.546*	-2.252
X1 * M2			.532	1.944			.319	1.137			.452	1.908
ΔR ²	.003		.007		.010		.003		.008		.005	
R ²	.275		.282		.245		.247		.457		.462	
F	72.966**		50.255**		62.300**		41.996**		162.222**		110.104**	

※ **p<.001, *p<.05

4.2.3.3 진로포부와 진로역량과의 관계에서 진로취업 관련 프로그램 참여 여부의 조절효과

진로포부와 진로역량과의 관계가 진로취업 관련 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단계적 조절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진로포부와 진로취업 관련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1단계에 투입하고, 2단계에서 진로포부와 진로취업 관련 프로그램 참여 여부의 상호작용변수를 추가로 투입하였다. 주효과를 통제한 후에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지 검증한 결과, 진로포부와 진로취업 관련 프로그램 참여 여부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포부와 진로역량의 관계에서 진로취업 관련 프로그램 참여 여부의 조절효과가 없음을 의미하므로 가설 3-3이 기각되었다.

<표 12> 진로포부와 진로역량의 관계에서 진로취업 관련 프로그램 참여 여부의 조절효과

변수	성찰역량				관계역량				행동역량			
	모형 2		모형 3		모형 2		모형 3		모형 2		모형 3	
	β	t	β	t	β	t	β	t	β	t	β	t
진로포부(X1)	.515**	11.657	.476**	6.339	.468**	10.351	.380**	4.964	.666**	17.146	.621**	9.562
진로취업관련 프로그램 참여여부(M3)	-.034**	-.770	-.223	-.761	-.087	-1.932	-.506	-1.694	-.077*	-2.008	-.244	-.961
X1 * M3			.188	.652			.416	1.418			.166	.666
ΔR ²	.001		.001		.007		.004		.006		.006	
R ²	.273		.274		.004		.245		.456		.456	
F	72.437**		48.361**		61.304**		41.647**		161.047**		107.357**	

※ **p<.001

4.2.3.4 진로포부와 진로역량의 관계에서 직무관련 경험 여부의 조절효과

진로포부와 진로역량과의 관계가 직무관련 경험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단계적 조절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진로포부와 직무관련 경험 여부를 1단계에 투입하고, 2단계에서 진로포부와 직무관련 경험 여부의 상호작용변수를 추가로 투입하였다. 주효과

를 통제한 후에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지 검증한 결과, 성찰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포부×직무관련 경험 여부의 증분설명량인 ΔR^2 은 1.1%($F=50.547$,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직무관련 경험 여부는 진로포부가 성찰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직무관련 경험 여부에 따라 진로포부와 성찰역량의 관계가 달라짐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즉 진로포부와 성찰역량 관계에 있어서 직무관련 경험 여부가 정(+)적으로 성찰역량을 강화시킴을 알 수 있다. 반면 관계역량과 행동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포부와 직무관련 경험 여부의 증분설명량인 ΔR^2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진로포부와 관계역량, 행동역량과의 관계에서 직무관련 경험 여부의 조절효과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가설 3-4는 부분 채택되었다.

<표 13> 진로포부와 진로역량의 관계에서 직무관련 경험 여부의 조절효과

변수	성찰역량				관계역량				행동역량			
	모형 2		모형 3		모형 2		모형 3		모형 2		모형 3	
	β	t	β	t	β	t	β	t	β	t	β	t
진로포부(X1)	.521**	11.906	.408**	6.373	.473**	10.587	.403**	6.143	.664**	17.487	.670**	11.973
직무관련 경험여부(M4)	-.004	-.098	-.665*	-2.390	-.093	-2.084	-.500	-1.752	-.059	-1.556	-.023	-.095
X1 * M4			.665*	2.404			.409	1.443			-.036	-.149
ΔR^2	.000		.011		.009		.004		.003		.000	
R ²	.272		.283		.243		.247		.453		.453	
F	72.036**		50.547**		61.701**		41.944**		159.580**		106.124**	

※ ** $p<.001$, * $p<.05$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비서학과 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진로포부, 진로역량 간의 관계를 고찰하고 전공만족도와 진로역량과의 관계에 있어서 진로포부의 매개효과와 진로포부와 진로역량의 관계에서 대학 내 진로취업지원 서비스 경험의 조절효과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와 그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서학과 학생들의 전공만족도, 진로포부, 진로역량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비서학과 학생들은 직업을 통한 성공 열망과 지속적인 발전을 꿈꾼다는 것과 전공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진로역량 수준에서는 성찰역량이 가장 높고 관계역량, 행동역량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비서학과 대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직업에 큰 관심을 갖고 진로를 고민하고 자신과 직업에 대한 이해 수준은 높다고 볼 수 있으나, 희망이나 관심을 이루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적 역량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기존 Akkermans et al.(2013), Kuijpers와 Meijers(2012), 정지은(2017) 연구에서 대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갖고 진로 방향과 자신의 특성을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있는 반면, 실천적인 행동역량에 있어서는 소극적인 행태를 보인다는 것과 일치되는 결과이

다. 따라서 비서학과 대학생들이 대학에서 하는 진로 고민과 탐색이 생각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적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전공에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공만족도와 진로포부는 진로역량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들은 행동역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성찰역량, 관계역량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진로역량의 주요 변인으로써 전공만족도와 진로포부의 역할을 규명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연구들(Akkermans et al., 2013, 정지은, 2017)에서 대체로 행동적, 실천적 역량이 부족하게 나타나고 있는 대학생들의 행동역량을 높여줄 수 있는 의미있는 변인으로 전공만족과 진로포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타 전공 학생들의 전공만족도가 진로포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권연정, 2018; 김국현·나승일, 2017)와 동일하게 비서학과 학생들의 전공만족도가 진로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전공만족도와 진로역량과의 관계에서 진로포부가 부분매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공만족도가 진로역량의 직접적인 영향 변인이기도 하지만, 전공만족도가 진로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세스를 이해할 수 있는 결과이기도 하다. 즉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생들이 높은 진로역량 수준을 보이는 동시에 전공만족도가 진로포부 수준을 높여 그 결과 학생들의 진로역량이 높아짐을 이해할 수 있다.

넷째, 진로포부와 진로역량과의 관계가 진로취업지원 서비스 경험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검증한 결과, 진로포부가 진로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진로취업교과목 수강, 진로취업상담, 진로취업프로그램 참여의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 개인의 진로교육 참여수준이 진로역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정지은(2017)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대학 진로교과목의 효과성을 검증한 연구들을 분석한 이동혁(2010) 연구에서 모든 대학 진로교과목의 효과성이 있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연구에서 대학 진로교과목이 학생들의 진로발달과 성공적인 학교생활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민욱 등(2020) 연구에서 진로취업교과목 수강이 진로역량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던 반면, 학과 교수와의 상담, 현장실습 및 인턴, 진로취업프로그램 참여는 진로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점은 본 연구 결과와 배치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학생 개인의 진로포부가 대학에서 제공하는 진로취업 서비스보다는 진로역량에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 학생들의 진로포부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반면 직무관련 경험은 진로포부와 관계역량, 행동역량과의 관계에서는 조절효과가 없었지만, 진로포부와 성찰역량의 관계에서는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진로포부와 성찰역량과의 관계에 있어서 직무관련 경험이 성찰역량을 강화시킴을 알 수 있으며, 진로취업지원 서비스 경험 중 직무 관련 경험이 효과적임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본 연구의 이론적, 실천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비서학과 학생들의 진로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전공만족과 진로포부의 역할을 규명하고 특히 행동역량을 높여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는 대학에서 실천적 역량 중심의 진로교육을 강조하고(정지은, 2017) 대학 진로교육이 진로역량 교육으로 재정향되고 이를 위해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의 개선이 요구된다

(강미영, 2020)는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양질의 전공교육과 진로교육에 있어 실천적 역량 함양을 위한 진로취업 지도 방안에 대한 모색과 함께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성찰이 실제적 행동으로 발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후속연구에서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생들의 행동역량을 높여줄 있는 의미있는 변인으로 전공만족과 진로포부가, 진로포부가 형성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인으로 전공만족이 밝혀진 것은 내실있는 전공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시사한다. 학생들의 전공만족은 향후 진로발달, 전공 관련 직업 인식 및 태도, 관련 직업 관심 및 적극적 진로준비 등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비서학과 학생들의 진로역량과 진로포부를 높이기 위해서 대학과 교수자는 내실있는 전공운영에 힘을 쏟을 것을 제안하며, 전공교육 및 진로지도 방안을 재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을 것이다.

셋째, 전공만족도가 진로역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만, 전공만족도가 진로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진로포부의 역할을 밝힘에 따라 이러한 결과를 타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확대하여 재확인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넷째, 기존 연구의 주요 결과와 달리 비서학과 학생들이 경험하고 있는 대학의 진로취업지원 서비스가 진로역량에 효과적이지 않게 나타난 이유에 대한 심도깊은 고찰이 필요하다. 대학 진로취업지원 현황조사(이재열 등, 2020)에서 대학 진로교육의 내용과 질이 학교별로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진로역량 수준이 계열별로도 차이가 있다는 점(강미영, 2020)은 비서학과 학생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진로취업지원 서비스에 대한 점검과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비서학 분야에서 진로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다룬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는 점에서 후속 연구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비서학과의 진로취업 지도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그 효과성을 확인하고 비서학과 학생들의 진로취업 교육에 대한 인식 및 요구도 등을 탐색해 보는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진로역량을 높이는데 있어 전공만족도와 진로포부의 역할을 규명해 봄으로써 향후 대학과 전공에서 이루어지는 진로역량 기반의 진로취업 지도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여 계속 변화하고 발전하는 대학과 전공의 교육 방향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의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비서학과 학생들의 전 생애 관점에서의 진로발달에 초점을 둔 진로역량 기반의 진로취업 지도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비서학과 학생들의 진로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학생들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진로취업 교육 내용과 그 효과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연구의 한계점도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일부 비서학과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중심으로 편의표집을 하여 연구결과를 전체 대학생들과 비서학과 학생들에게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다. 둘째, 연구대상을 편의표집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하고 Covid-19로 인한 비대면 교육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응답 상황을 통제하기가 어려워 표본 집단이 성별, 학년별로 편포되어 있다는 것이 한계점으로 남는다.

참고문헌(References)

- 강미영(2020). “대학생의 진로역량 교육 요구도 분석”, **취업진로연구**, 10(3), 23-47.
- 강승희(2010). “공학전공 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태도성숙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직업교육연구**, 29(3), 291-307.
- 강명숙(2015). **대학생의 자기주도성과 전공만족도가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한서대학교 대학교.
- 강영숙 · 이은정(2006). “사회복지학 전공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전북지역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15, 1-22.
- 고미나 · 박재황(2012). “대학생의 내, 외적 진로장벽,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포부, 진로결정수준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진로교육연구**, 25(2), 81-100.
- 교육부(2015). **2015 학교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
- 권연정(2019). “에비유야교사가 인식하는 전공만족도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23), 1107-1126.
- 김국현 · 나승일(2014). “전문대 학생의 진로포부와 개인 및 대학 변인의 위계적 관계”, **진로교육연구**, 30(1), 141-161.
- 김경주 · 송병국(2011). “청소년 진로포부 영향 요인 구조 분석”, **직업교육연구**, 30(2), 191-115.
- 김경화(2012). “대학생의 진로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요구도 분석”, **청소년학연구**, 19(6), 359-379.
- 김계현 · 하혜숙(2000). “대학생의 학과(학부) 만족의 요인에 관한 연구”, **상담학연구**, 1(1), 7-20.
- 김명희 · 최용용(2014). “일반계 여고생이 지각한 진로장벽,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과기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진로포부를 매개로”, **진로교육연구**, 27(1), 83-107
- 김미영(2014). “개인특성, 학업적응 및 대학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와 진로준비의 관계”, **비서·사무경영연구**, 23(1), 5-25.
- 김미영(2015). “비서학 전공 졸업예정자의 진로준비행동의 영향 원천과 취업스트레스에 대한 질적 연구”, **비서·사무경영연구**, 24(2), 143-162.
- 남순현(2005). “진공몰입과 직업가치: 성별, 지역별, 계열별 차이를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19(1), 223-242.
- 문인오 · 이경완(2010).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진로탐색효능감이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6(1), 83-91.
- 문주영(2021). “자연언어 처리를 통한 최근 비서학 연구 지식 네트워크 분석”, **비서·사무경영연구**, 30(2), 29 - 52.
- 문학선 · 김양균(2020).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취업진로연구**, 10(3), 91-119.
- 박가열(2009). “대학생 진로개발 역량을 위한 교육요구 분석”, **진로교육연구**, 22(2), 181-198.
- 박보경(2021). “대학생이 인식하는 사회적 지지가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 그릿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취업진로연구**, 11(3), 143-162.
- 박용두 · 이기학(2008). “사회적 지지, 자존감, 진로포부 간의 성차 모형 검증: 개인자존감과 집단자존감의 매개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3(3), 263-282.
- 서보람 · 이기성(2018). “비서학전공 전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전공만족도,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비서·사무경영연구**, 27(1), 87-116.
- 소영호 · 하상원(2014). “골프전공 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

- 한국사회체육학회지, 58(1), 567-580.
- 손종익(2016). **여행참여도와 전공만족도가 여행사의 고용의 질 인식과 취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 송윤정·조규관(2015).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학습몰입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4), 355-374.
- 유승혜·조영아·김정아(2010). “비서학전공 전문대학생들의 진로태도 성숙도와 취업역량 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연구”, **비서·사무경영연구**, 19(1), 165-188.
- 윤지영(2014). “비서학 전공 전문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 전공만족도, 직업가치관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 **비서·사무경영연구**, 23(2), 111-132.
- 이민옥·이가영·김정현(2020). “대학생의 진로 취업 관련 교과목 및 서비스 경험이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영향”,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52(3), 79-107.
- 이정애·황재규(2012).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포부 사이의 관계에서 성취목표지향성의 조절효과 검증”, **진로교육연구**, 25(1), 37-52.
- 이재열·정윤경·류지영·이윤진·박봉남(2020). **대학 진로취업지원 현황조사**. 세종: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이중훈·김성환(2018). “전공만족도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대학생의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평생교육·HRD연구**, 14(2), 77-96.
- 이환의·차재빈(2020). “학생-교수 관계의 질이 교육만족, 진로포부, 취업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취업진로연구**, 10(3), 71-90.
- 임언(2008). **역량중심 교과통합 진로교육을 위한 탐색**.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임언·최동선·강혜영(2006). **대학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효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임은미·박승민·엄영숙(2009). “대학생의 진로미결정 수준과 전공 만족도, 전공 및 직장선택 기준의 차이”, **청소년학연구**, 16(10), 33-50.
- 장선철(2003). **대학생의 진로결정유형화와 개인·인지 변인간의 관계 분석**.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원섭(2004). “대학생의 노동시장 준비 행동 변화에 대한 탐색”, **직업교육연구**, 23(1), 103-118.
- 장현진(2018). “학교 진로교육 활동 참여와 만족도가 중학생의 진로개발역량, 학습동기 및 자기주도학습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31(1), 21-42.
- 정은이(2015). “대학생 진로 역량 검사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교육방법연구**, 27(3), 401-428.
- 정주영(2013). “대학교육만족도, 직업가치관, 직업만족도에 관한 구조적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31(1), 53-83.
- 정지은(2017). **대학생 진로역량과 학생 및 대학 특성의 다층분석**.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진미석·이강주·이상아·김하령(2017). “대학생 진로교육경험과 진로개발 핵심역량”, **핵심역량교육연구**, 2(1), 1-21.
- 진미석·정혜령·이수영(2010). “국내 4년제 대학의 진로개발지원 현황과 과제”, **진로교육연구**, 23(1), 135-152.
- 최동선·윤형한(2007). **생애단계별 진로개발 표준: 전문대학 및 대학교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최수미(2013). “성별에 따른 부모진로지지와 진로포부와 관계: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아시아교육연구**, 14(2), 213-234.
- 최예슬·오현석(2011). “중학생 직업포부의 변화추이, 유형 및 영향요인 분석”, **한국교육학연구**, 17(3),

237-265.

황매향 · 박은혜 · 유성경(2006). “학업우수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직업포부수준 비교”, *상담학연구*, 7(4), 1137-1152.

- Akkermans, J., Brenninkmeijer, V., Huibers, M., & Blonk, R. W. B.(2013). “Competencies for the contemporary career: Development and preliminary validation of the career competencies questionnaire”,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40(3), 245 - 267.
- Baron, R. M. & Kenny, D. A.(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di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DeFillipi, R. J. & Arthur, M. B.(1994). “The boundaryless career: A competency based perspective,”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15(4), 307-324.
- Farmer, H. S.(1985), “Model of career and achievement motivation for women and 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2(3), 363-390.
- Kuijpers, M. A., Meijers, F., & Gundy, C.(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ing environment and career competencies of students in vocational educa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8(1), 21-30.
- Gottfredson, L. S.(1981),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A developmental theory of occupational aspira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6), 545-579.
- Gray, M. P.(2001). *The career aspiration scale: Instrument development and research application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 Kuijpers, M. & Meijers, F.(2012). “Learning for now or later? Career competencies among students in higher vocational education in the Netherlands”, *Studies in Higher Education*, 37(4), 449-467.
- Kuijpers, M. A., Schyns, B., & Scheerens, J.(2006). “Career competencies for career succes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5(2), 168-178.
- O’Brien, K. M.(1996), “The influence of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parental attachment on the career development of adolescent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al*, 48, 79-122.
- Plaud, J. J., Baker, R. W., & Groccia, J. E.(1990). “Freshman decidedness regarding academic major and anticipated and actual adjustment to an engineering college”, *NACADA Journal*, 10, 20-26.
- Rothwell, A., Herbert, I., & Rothwell, F.(2008). “Self-perceived employability construction and initial validation of a scale for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3(1), 1-12.
- Van. Dongen, C. J.(1996). “Quality of life and self-esteem in working and nonworking persons with mental illness”,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32(6), 535-548.

The effect of major satisfaction of college students in secretarial department on career competency: mediating effect of career aspiration and moderating effect of career and employment support service experience

Jung-hee Hwang*

Baekseok Arts University, Seoul,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major satisfaction, career aspiration, and career competency of college students in secretarial department, and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aspir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competency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support service experience of career and employment within the univers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aspiration and career competency. The analysis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major satisfaction, career aspirations, reflective ability, relationship competency, and behavioral competency of secretarial students were significantly high. Second, the relationship between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competency,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aspiration, and career aspiration and career competency all showe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Participation in career courses, career employment counseling, and career employment programs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reflection competency, relational competency, and behavioral competency, and desired job-related experience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relational competency and behavioral competency. Third,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aspirations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career competency. Also, major satisfact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career aspirations. Fourth, it was found that career aspirations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competency. Fifth, the result of examining whether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aspirations and career competency depends on the experience of career employment support service showe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of taking career employment courses, career employment counseling, and participation in career employment program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aspirations and career competency. Job-related experience had no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aspirations, relational competency, and behavioral competency, whereas it was found to have a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aspirations and reflective capability. This study will be able to provide guidelines for the direction of major education and career education for college students in secretarial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Baekseok Arts University, 23 Bangbae-ro, Seocho-gu, Seoul, Korea, 06695; E-mail: dearhwang@bau.ac.kr; Tel: +82-2-520-0660; Fax: +82-2-520-6205.

department.

Key Words : College Students in Secretarial Department, Major Satisfaction, Career Aspiration, Career Competency.
